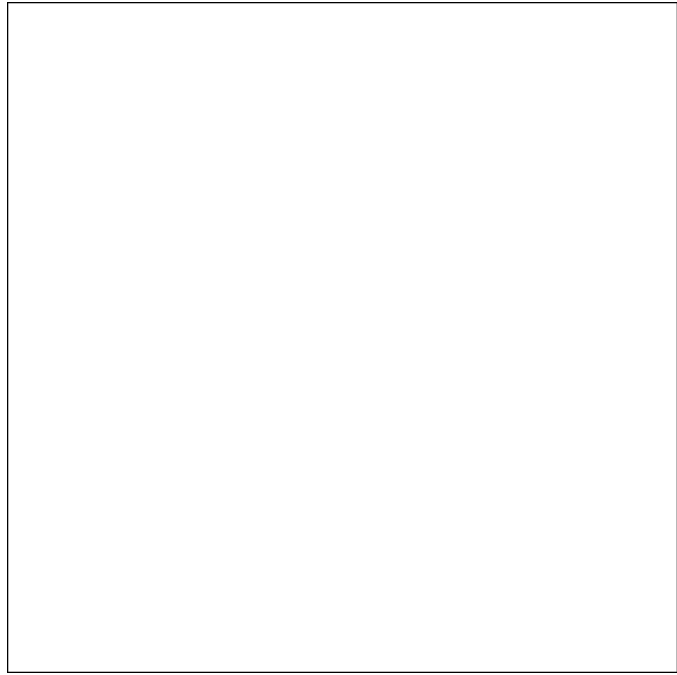




(imageless edition)

✎ Lesley Koyi, Ursula Natula  
👤 Brian Wambi  
📧 Jong Yong Park  
🗣️ Korean  
📖 Level 3



원어로 읽는 어린이책



# Storybooks Canada

[storybookscanada.ca](http://storybookscanada.ca)

원어로 읽는 어린이책

Written by: Lesley Koyi, Ursula Natula

Illustrated by: Brian Wambi

Translated by: Jong Yong Park

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([africanstorybook.org](http://africanstorybook.org))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's stories in Canada's many languages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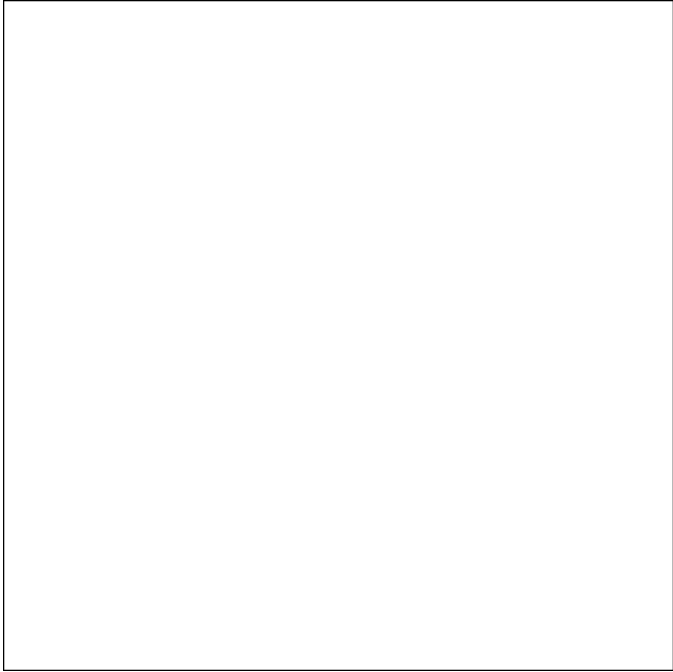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.  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>



우리 마을의 작은 버스 정류장은 사람들과 가득 찬 버스들로 붐볐어요. 바닥에는 실을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. 암표상들은 버스 행선지들을 외치고 있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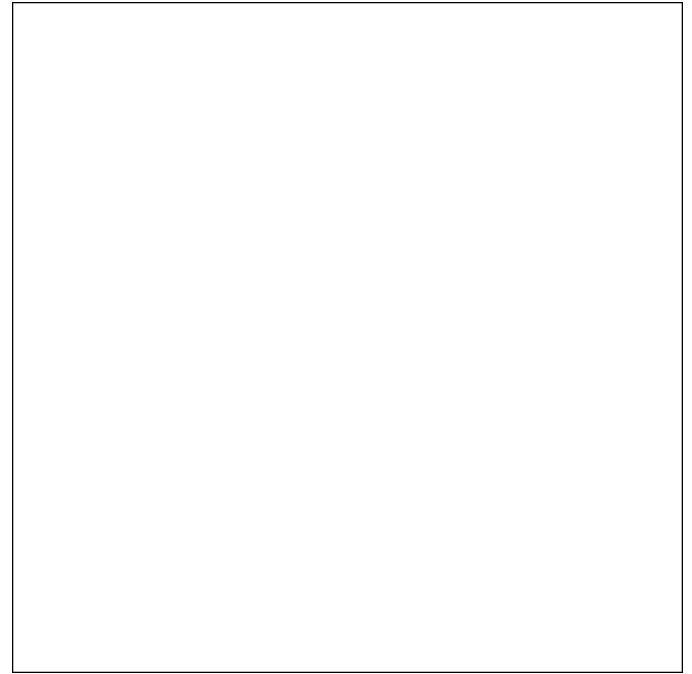
야공.

이 위치는 권를 얻어공. 내가 타야 하는 버스였  
"시내! 시내! 사정으로 끝났어! 내야! 내야!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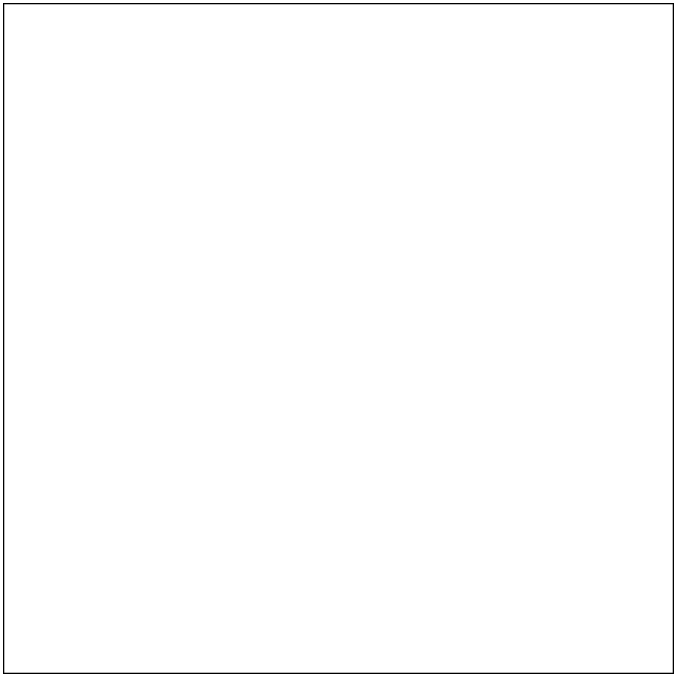


시내버스는 거의 찾지만, 더 많은 사람들이 타려고 밀고 들어오고 있었어요. 어떤 사람들은 짐을 버스 아래에 싸두었어요. 다른 사람들은 버스 안 선반에 두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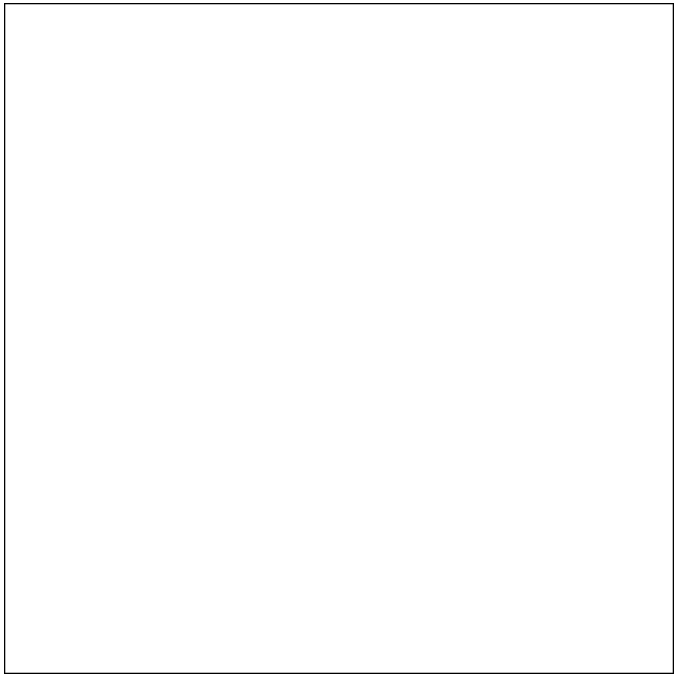


돌아가는 버스는 빠르게 차고 있었어요. 금새 동쪽으로 돌아가겠죠. 나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, 삼촌의 집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.

새 탑승객들은 티켓을 꼭 쥐고 물비는 버스 안  
에 앉을 곳을 찾아야요. 여자들은 어린 아이를  
를 긴 여행을 위해 편하게 만들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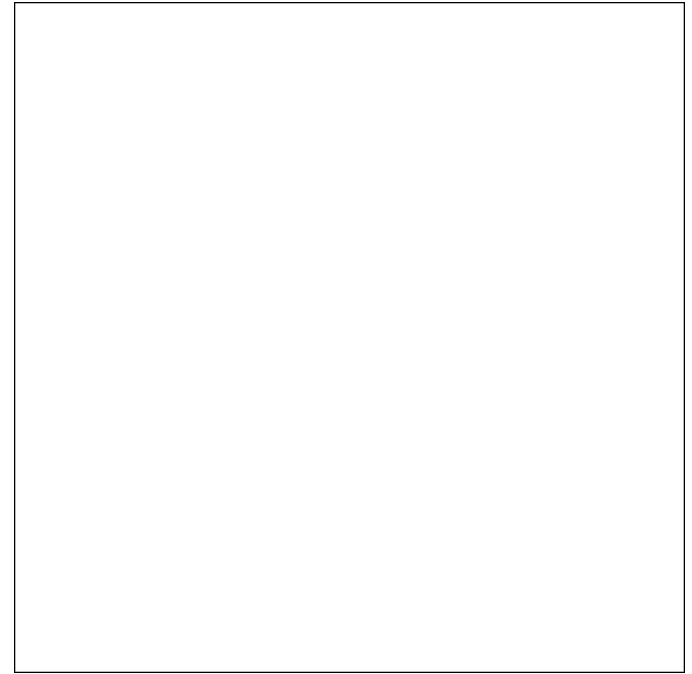


아름 시간 뒤에 난 커다란 두들기는 소리와 내  
마음포 통아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 깰  
어요. 난 내 작은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뛰어내  
렸어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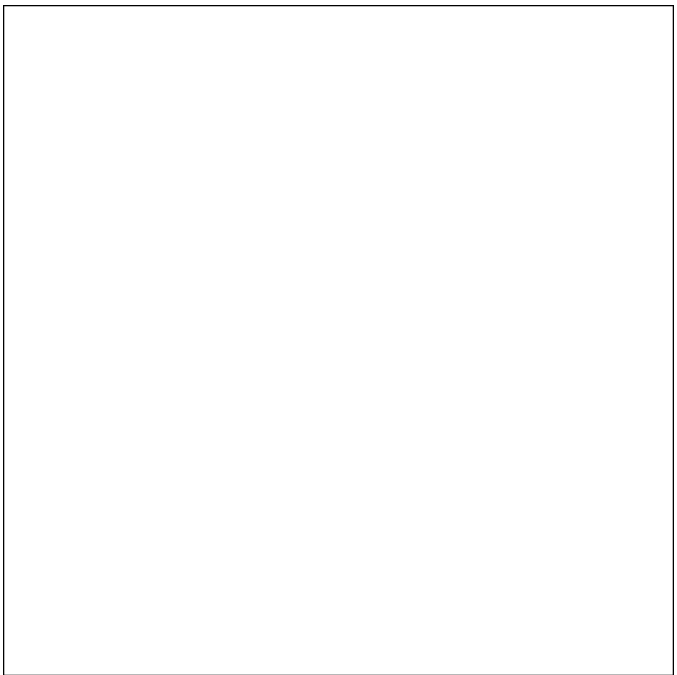


난 창가 옆에 끼어앉았어요. 내 옆의 사람은 초록색 플라스틱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. 그는 오랜 샌들과 헤진 코트를 입고 있었고, 그리고 불안해 보였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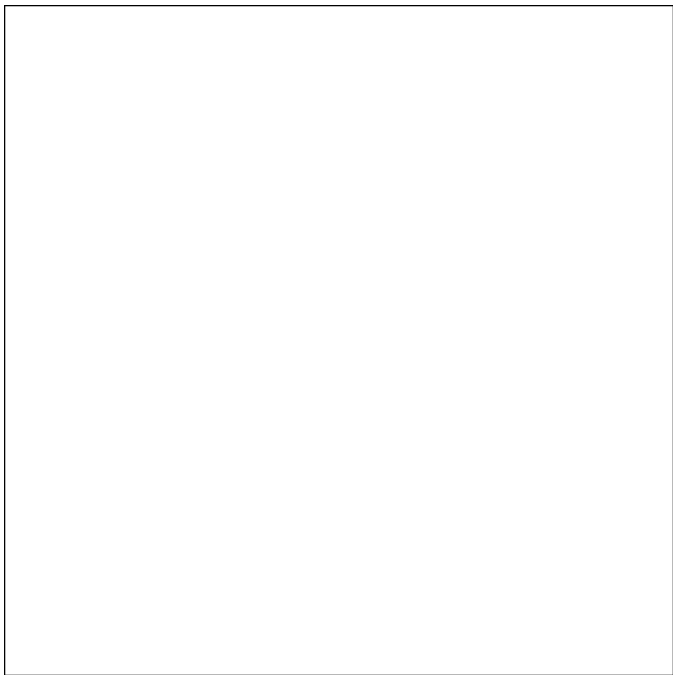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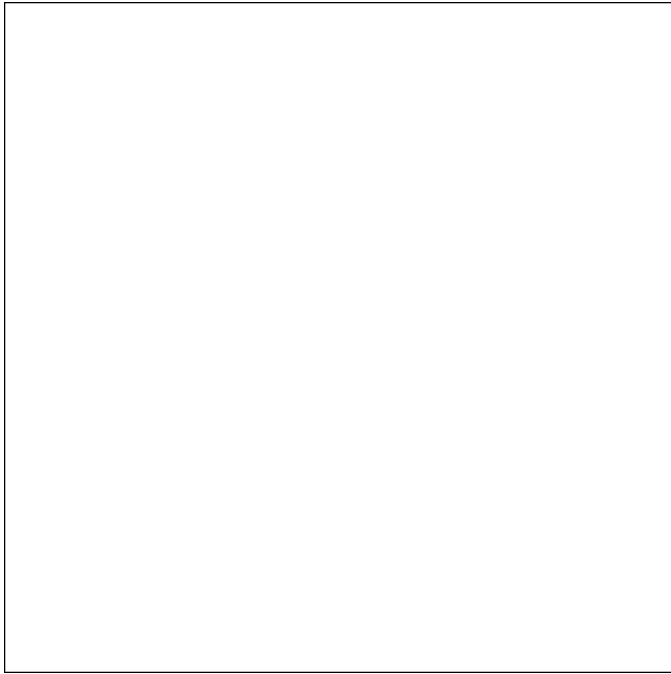
가는 길에 난 삼촌이 큰 도시에서 사는 곳의 이름을 외웠어요. 잠에 들때도 중얼거리고 있었죠.

나 버스 밖을 보고 내가 자라난 우리 마을을 떠  
나고 있다면 깨달아야요. 나 큰 도시로 가는 중  
이잖아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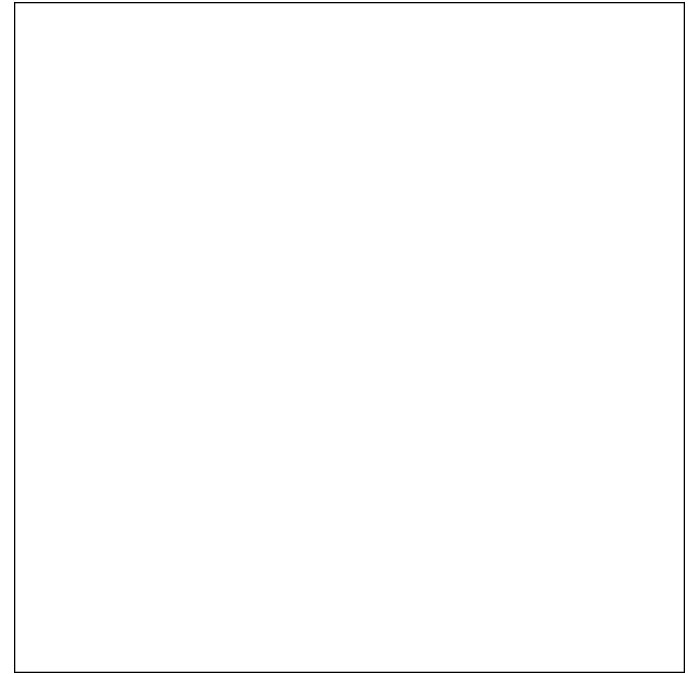


하지만 내 생각은 집으로 향했어요. 어머니는  
안전하십니까? 내 도시들이 흔들릴까요? 내  
동생이 나무 밑에 몸을 숨겨야 할까요?  
가시겠습니까? 큰 도시로 향할까요?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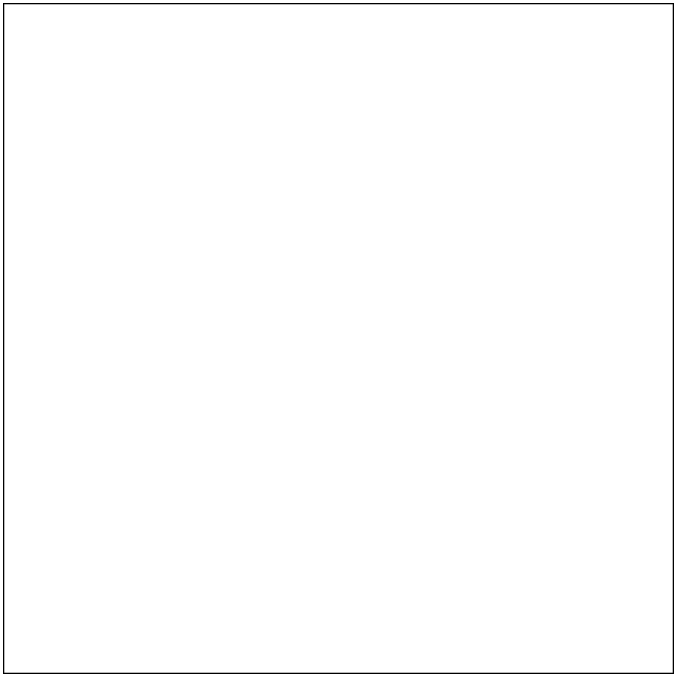
짐 싣는게 끝나고 모든 승객들이 앉았어요. 행  
상인들은 물건들을 승객들에게 팔기 위해 버  
스 안으로 밀치고 들어왔어요. 각자 무엇을 팔  
고 있는지 외쳤어요. 단어들이 웃기게 들렸어  
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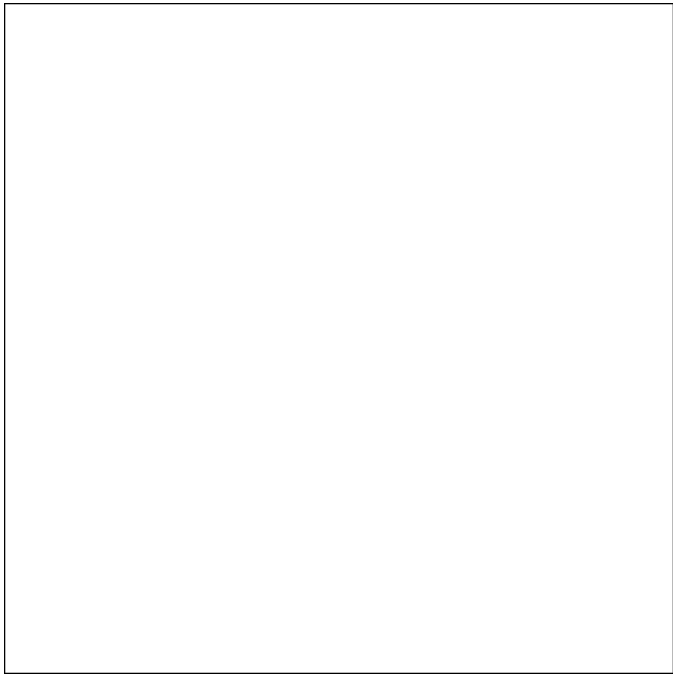
여행이 진행되면서 버스는 매우 더워졌어요.  
난 내 눈을 감고 잠들기를 바랬죠.



뿔뿔 승객들은 머신 것을 샀고, 다른 사람들은  
좌승 간식을 사서 씹기 시작했어요. 나 같이 돈  
이 없는 사람들은 보기만 했죠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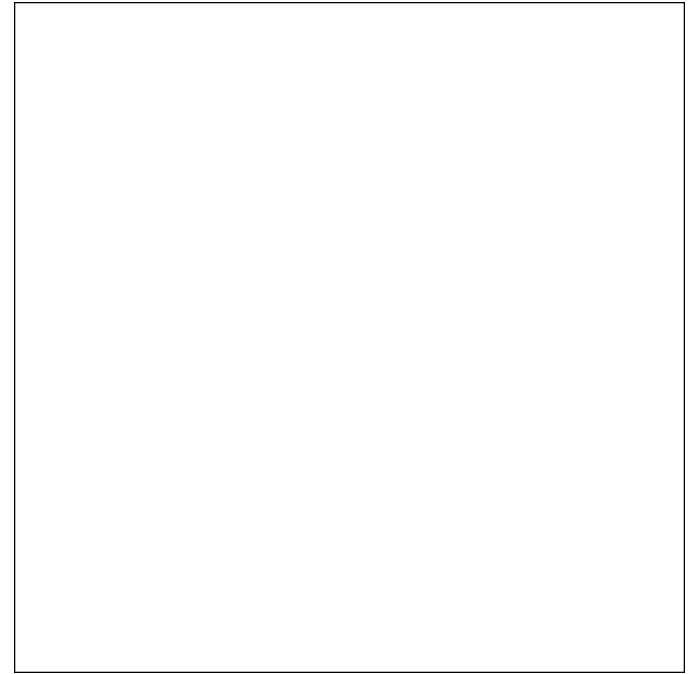


버스가 좌불좌를 떠날때, 난 좌 밖을 내다보았  
어요. 난 내가 과연 언제가는 머플링 다시 토크아  
를까 웃고 있었어요.





이런 행위들은 버스 경적소리에 중단되었어요. 우리가 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죠. 암표상은 행상인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질렀어요.



행상인들은 버스에서 나가기 위해 서로를 밀쳤어요. 몇은 여행객들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었어요. 다른이들은 마지막으로 더 팔려는 노력을 했죠.